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읽기 試考

이황진*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어른들을 위한 동화
- III.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본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관점에서 감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보통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성인동화’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인식하며 그 둘을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읽어서는 안 되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도 존재하므로 그 둘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쓰여야만 한다. 이에 필자는 성인동화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화의 형식 혹은 동화라는 이름을 빌려 창작된 이야기’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동화 본연의 특성을 간직하며 창작된 동화’로 분류하였다. 그리하면, ‘성인동화’는 자연스레 아동문학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학이 될 것이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아동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학이 된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란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는 동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꼬마 옥이』를 감상해 본 결과 『꼬마 옥이』는 충분히 ‘어른들을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위한 동화'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어른들을 위한 동화, 성인동화, 아동문학, 이원수, 「꼬마 욕이」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성인동화가 출판시장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¹⁾ 그 이후 성인동화는 우리 문학에서 급격하게 그 폭이 넓어지며, '문학적 틈새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학의 선봉에 우뚝 자리하고 있다'²⁾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는 '교보문고 북마스터가 추천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19선'³⁾처럼 독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그러한 책들을 모아 소개하고 추천하는 글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인동화는 현재까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생각하는 동화', '어른이 읽는 동화', '성인(용)동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⁴⁾ 대부분이 이들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인식하며 별다른 구별 없이 사

1) 박천홍,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 『출판저널』 280, 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p.39.

2) 손종일, 「성인용 동화의 영역탐구 -첨부작품:“어린왕자를 찾아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6.

3) 교보문고 북마스터가 추천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19선(2013) :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030&contents_id=39071

4) 샘터에서 출판된 정채봉의 동화는 '생각하는 동화'라는 부제를, 열림원에서 출판된 정호승의 소설은 '어른이 읽는 동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리고 최지훈은 '성인동화', 손종일은 '성인용 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성인만이 읽을 수 있는 동화가 아니라, 성인도 읽을 수 있거나 성인이 읽기에 더 적절한 동화라는 의미에서 각기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하고 있다. 물론 성인동화라는 용어는 문학의 정식 갈래 개념이나 유형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겨졌던 동화가 성인에게까지도 읽혀질 수 있다는 소비나 유통과 관련된 용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인동화라 일컬어지는 작품들 중에는 “어른들도 읽는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⁵⁾고 평가받는 정채봉의 동화처럼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독자로 하는 성인동화도 있고, 정호승의 ‘어린이 읽는 동화’ 시리즈처럼 어린이가 읽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읽기엔 다소 난해한 성인동화도 있고,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나 ‘그로테스크한 19금 성인동화’⁶⁾등과 같이 어린이는 읽어서는 안 되는 성인만을 위한 성인동화도 있다. 성인동화의 붐과 열풍이 지속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그 내용과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용어 정리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성인동화의 범주와 그 용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그리고 성인동화로 칭해지지만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읽을 수 있으며 동화 본래의 속성을 보존하고 있어 아동문학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인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지칭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후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⁷⁾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관점에서 감상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여태껏 이원수의 동화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소개되거나 그러한 관점에서

5) 허연, 『(인터뷰)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작가 정채봉씨 “어른과 아이가 공감하는 세계를”』, 매일경제 1997.04.28., 31면 기사.

6) 국수경 편역,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2006, 백안) ; 편린 지음, ‘그로테스크한 19금 성인동화 시리즈’ 『푸른 수염』, 『빨간 망토』, 『라퐁젤』, 『거위치는 소녀』, 『이반, 불새, 회색 늑대』(러브홀릭, 2014)

7)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소년세계』와 『학원』지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연구된 글은 없었기에, 본고는 이원수의 작품세계를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어른들을 위한 동화

1. ‘성인동화’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혹은 ‘성인동화’라는 말이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게 된 것은 아무래도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영향이 클 것이다. 이는 정채봉이 2001년 당시 ‘한국 아동문학의 흐름을 선도해 왔고 현재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동문학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후, “생텍쥐페리 동화 『어린왕자』는 한국의 아동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아동문학의 본격 성장기에 동화의 무한한 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작가들이 추구해야 할 한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많은 작가들이 『어린왕자』를 통해 아동문학의 본질을 새로이 인식하였으며, 창작 자세를 달리 하였다. 한편으로 작품의 ‘난해성’ 문제를 불러 오기도 했지만, 동화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⁸⁾라고 내린 결론에서도 그러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린왕자』의 영향과 함께 “동화의 영역을 성인을 위한 동화로까지 넓혀 저변 확대에 성공”⁹⁾하였다고 평가받는 정채봉의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인해 ‘어른들을 위한 동화’(성인동화)는 대중들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문학동네’에서 안도현, 김지수, 김진경, 이하석, 전경린 등 문단의 중견과 신진 작가가

8) 정채봉, 『생텍쥐페리가 한국아동문학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 20,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95-103.

9) 조일영, 『정채봉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76.

두루 참여해 집필한 ‘어른을 위한 동화’ 시리즈, 열림원에서 출간한 정호승, 안도현의 ‘어른이 읽는 동화’ 시리즈, 샘터에서 펴낸 ‘어른을 위한 동화’ 등이 그 봄에 힘을 보탰다.¹⁰⁾ 이처럼 이십년 전부터 우리 문학에서 급격하게 그 폭이 넓어지며 이제는 당당히 문학코너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 ‘성인 동화’의 영역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대부분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성인동화’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출판업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인동화’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연구자로는 최지훈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동화는 비록 성인동화라고 불리거나 스스로 그렇게 말하거나 간에 ‘어른도’ 읽을 수 있는 동화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¹¹⁾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 역시 이들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손종일은 “성인용 동화는 그 대상이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라는 점에서 그 격을 달리 하게 된다. 그렇듯 성인용 동화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거기서 오는 그 대상의 차이가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보다 한층 고차적 문학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고 하였으며, 박재형은 “동화 중에는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내용이나 문장이 좀 난해한 것들이 있고, 어린이들보다 젊은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가 있어 성인동화라는 말이 생겨난 듯하다.”¹³⁾며 어린이들이 읽어도 되지만, 내용의 난해성이나 고차

10) 박천홍, 앞의 글, pp.38-39.

11) 최지훈, 『동화작가 정채봉론 - 동심과 신앙적 가치관이 엮는 성인동화의 가능성』, 1989, p.34.

12) 손종일, 앞의 논문, p.3.

13) 박재형, 『(서평) 소위 성인을 위한 동화라는 것, 이상배의 <눈물꽃>, 송재찬의 <찬란한 믿음>, 김상삼의 <가슴앓이 새>』, 『아동문학평론』 18-4, 한국아동문학연구회,

적 문학정신이 내포되어 있어 성인들에게 더 적절한 동화라는 정도로 ‘성인동화’를 특징짓고 있다.

하지만 “‘어른이 읽는 동화’는 ‘어른’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와 ‘동화’에 방점을 찍은 이야기로 나뉜다. 전자가 잔혹성·악마성·성욕 등 인간의 본성탐구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후자는 순수성·사랑·희망의 전언을 담고 있다.”¹⁴⁾는 박천홍의 분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후자처럼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두 읽어도 좋은 성인동화가 있는 반면, 전자처럼 어린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성인만을 위한 성인동화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인동화라는 용어는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최지훈은 “어린이가 아닌 세대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표기로서 성인 동화라는 말을 만들어 쓰는 것도 무방할 것이고, 소년만을 위한 소설이 존재하듯이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창작된다고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아동문학의 범주에서 관심을 가질 바가 못 될 것”¹⁵⁾이라며 성인동화라는 용어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동화라는 용어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성인동화’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성인동화’의 ‘성인’이 현실적으로 ‘성인소설’의 ‘성인’과 일반 언중에게 다른 뜻으로 쓰인다고 할지라도 학문적(과학적) 용어로서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쓰이지 않으면 과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동화’의 ‘성인’을 ‘성인소설’의 ‘성인’과 같은 개념으로 쓰게 된다면 ‘성인만 읽어야 하는 동

1993, p.131.

14) 박천홍, 앞의 글, p.39.

15) 최지훈, 앞의 논문, p.33.

화가 되어 동화가 지닌 본래 개념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말을 바꾸면 ‘성인이(만) 읽어야 하는 동화’는 아동문학일 수 없으므로 이미 동화가 아니라 ‘소설’인 것이다.”¹⁶⁾

“어른도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두고 ‘성인동화’라고 하면 되겠는가? 수준이 난해해 어린이가 이해하기 벅찬 동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동화가 아니다. 동화적 수법을 빌렸을 뿐, 소설과 같은 서사 문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동화는 어디까지나 ‘어린이를 위한’ 서사 문학이기 때문이다.”¹⁷⁾

그의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참고할만한 내용이고 수궁이 가는 논리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출판계에서는 성인만을 위한, 성인들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야기)이 ‘성인동화’라는 부제를 달고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¹⁸⁾ 그것이 ‘성인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든, 기존 동화를 바탕으로 하여 성인용으로 각색 혹은 재창작된 것이든, 동화적인 수법을 빌린 것

16) 최지훈, 『아동문학 장르, 다시 생각한다』, 『아동문학평론』 34-3, 한국아동문학연구회, 2009, p.129.

17) 최지훈, 『동화 문학의 하위 갈래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창비어린이』 8-3, 창작과비평사, 2010, p.79.

18) 최지훈은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아동문학의 범주로서 관심을 가질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과문 탓인지는 모르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작품은 생산된 적이 없었으므로 논의를 바는 아니라고 믿는다.”(최지훈, 『동화작가 정채봉론 - 동심과 신앙적 가치관이 엮는 성인동화의 가능성』, p.33)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그는 ‘성인만을 위한 동화’의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듯하다. 아마도 이 글을 쓸 당시인 1989년에는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류의 글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성인만을 위한 동화는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부류의 책들에 대한 고려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이든, 그것들이 일반적인 소설과는 달리 동화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제는 이미 ‘성인동화’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이상, 이러한 현상과 추세를 가로막거나 성인만을 위한 동화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니므로 성인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는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볼 수 있는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성인만이 볼 수 있는 동화는 ‘성인동화’로 구별하여 명명하자고 제안한다. (최지훈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성인동화’는 성인만화, 성인영화 등과 같은 용어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은 봐서는 안 되는’이라는 금지의 뉘앙스를 풍길 뿐만 아니라 ‘동화’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린다. 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어른들이 읽으면 더 좋은’ 동화라는 의미를 가지며, ‘동화’ 본래의 속성을 제대로 보존한다. 그러므로 성인동화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화의 형식과 수법 혹은 동화라는 이름을 빌려 지어진 동화의 탈을 쓴 이야기’이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동화 본연의 특성을 간직한 업그레이드 된 동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성인동화’는 성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자연스레 아동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학이 되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들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아동문학 범주에 포함시켜 함께 다뤄도 무방한 문학이 되는 것이다.

2.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정의

이 부분에서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성인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지칭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기로 하겠다.

사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역시 ‘성인동화’처럼 ‘어른’(성인)이라는 단어와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인 ‘동화’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언어유희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한다. 그 러하기에 절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용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인동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은 용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논리적으로나 용어상으로나 큰 문제없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문학이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창조한 문학”¹⁹⁾이며, “아동문학의 본질은 무엇보다 그것이 동심을 구현한다는 데 있다. 동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자세로서, 아동기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내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순수”²⁰⁾이며, “어른이 읽어도 읽히는 아동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동문학가의 올바른 자세”²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른들에 좀 더 비중을 두어 그들을 위해 창작된 동화를 일컫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대명사로 할 수 있는 『어린왕자』

19) 석용원, 『아동문학 원론』, 동아학연사, 1982, p.15.

20) 조하연, 『정채봉 동화에 나타난 동심의 구현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4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0, p.335.

21) 이재철 (『남겨야 될 글과 버려야 될 글』, 『아동문학 평론』 12-4,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87, p.13.)은 아동문학가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어른이 읽어도 읽히는 아동문학 작품, 어떤 감동과 새로운 노력이 보이는 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느낌이 있는 글, 그런 글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는 자세,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레옹 베르트에게 -22)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이유는, 이 어른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조차도,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른은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 모든 해명이 충분치 않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이 예전에 어린이였던 그 시절의 그분에게 기꺼이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모두 처음에는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현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오 베르트에게

별다른 설명과 해설 없이도 『어린왕자』가 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불리고 인정받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글이다. 박천홍은 생텍쥐페리의 이 글이 성인동화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으며, ㉠“한 때 어린 아이였던 어른에게 그 기억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을 위한 동화²³⁾라고 정의한다.

195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후안 라몬 히메네스(Juan Ramon Jimenez)는 『모르게 마을의 시요일』(원제:Platero and I)의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 생텍쥐페리 지음, 이정림 옮김, 『어린왕자』, 범우사, 1991, p.10.

23) 박천홍, 앞의 글, p.38.

- 이 책을 아이들에게만 읽도록 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24)

나는 아이들만을 위한 글을 지금까지 써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른이 읽고 감동을 받은 책은 아이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 조금씩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비단 어른과 아이들 느낌의 차이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감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 말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특징을 잘 대변해 준다. 이에 근거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로써, 어린이는 어린이의 느낌대로, 어른은 어른의 느낌대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정채봉은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영역을 개척하며 동화 독자층의 확대를 불러왔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자신이 동화를 쓰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믿음을 나도 믿는데 나의 신앙은 동심이다. 흔히들 동심을 아이 마음으로 말하나 나는 한결음 나아가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동심으로 우리는 악을 제어할 수 있으며, 죄에서 회귀할 수 있으며, 신의 의지에로 나갈 수 있다. 이 영혼의 고향(동심) 구현이 나의 작품 세계의 기초이다.²⁵⁾

그리고 권순연은 정채봉의 동화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정채봉의 동화는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인간 본질에

24) 후안 라몬 히메네스 지음, 김은정 옮김, 『모르게 마을의 시요일 (Platero and I)』, 국일문화사, 1991, pp.11-12.

25) 정채봉, 『왜 동화를 쓰느냐고 물으신다면』, 『물에서 나온 새』, 샘터, 1993, p.5.

대한 사유가 동반되어 인간 영혼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는 문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그의 문학은 주제나 구조가 심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동화’, ‘생각하는 동화’, ‘성장소설’이라는 여러 꼬리표로 청소년이나 성인이 즐길 수 있는 동화 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린이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계층이 읽을 수 있는 동화문학을 확인하고,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고 동심의 마음을 찾으려는 어른 독자에게까지 독자층의 확대를 불러온 것이다.²⁶⁾

위의 정채봉이 동화를 쓰는 이유와 정채봉 동화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영혼의 고향인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고, 어린이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동심의 마음을 찾으려는 어른 독자까지도 독자층으로 받아들이는 동화”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참고할만한 것으로 안도현의 견해가 있다. 그는 “어른동화는 단순한 구성 속에서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제를 담아낼 수 있다. 어른과 어린이, 동화와 소설의 ‘중간찾기’가 어른동화가 나아갈 방향”²⁷⁾이라고 하였다. 나름 일리가 있는 견해이긴 하다. 하지만 필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른과 어린이, 동화와 소설의 중간찾기’라기보다는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동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 ㉮·㉮·㉮의 정의를 종합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란,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어른에게는 어른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26) 권순연, 『정채봉 동화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4.

27) 박천홍,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 중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제로 빛나는 성인용 동화’(안도현 인터뷰), p.38.

동화”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충분히, 아니 마땅히 아동문학에 속하는 문학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아동문학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3.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조건

필자가 바로 위에서 내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정의는 곧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즉,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①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은 동화일 것
- ②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동화일 것
- ③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어른에게는 어른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동화일 것. 이는 곧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작품에 대한 해설(해석·분석·연구 등)은 어린이와 어른, 둘 모두의 관점(입장, 시선, 수준 등)이 모두 반영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④ 어른들이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일 것

이 외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정채봉이 우리나라에서 “어른들도 읽는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받게 하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채봉의 동화는 작가의 동심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 의식이 표출이 된 뛰어난 작품으로 동화문학의 독자층을 넓히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²⁸⁾ 또한 “정채봉의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동심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

리를 동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정채봉 동화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두루 읽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첨가할 수 있다.

- ⑤ 작가의 동심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의식이 표출이 된 뛰어난 동화일 것.
- ⑥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한 동화일 것.

이러한 조건들을 염두에 두면, 잔혹성·악마성·성욕 등 인간의 본성탐구에 무게 중심을 둔 성인동화, 어른만을 그 대상으로 한 성인동화, 어린이가 읽기에 과도하게 난해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이 어려운 성인동화, 아동문학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성인동화들은 그 어느 것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분류될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하여 지어진 동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린이의 눈높이에만 맞게 창작되어 어른들이 보았을 때 별다른 공감이나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동화이거나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해낸 동화가 아니라면 그 역시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분류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심을 이념으로 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지어진 동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해낸 뛰어난 작품으로서 (저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심을 회복할 수 있는 동화라면 이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분류될 수 있다. 이원수의 『꼬마 옥이』가 여태껏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소개되거나 연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³⁰⁾ 필자가 『꼬마 옥이』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관점에서 감

28) 이미희, 「정채봉 동화의 특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2.

29) 조일영, 앞의 논문, p.2.

30) 이원수 자신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같은 타이틀이나 부제를 달고 동화를 출판한

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와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본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소년세계』와 『학원』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³¹⁾

『꼬마 옥이』는 ㉠처음 이야기 ㉡그림자들의 이야기 ㉢옥이와 자장가 ㉣옥이의 천국 ㉤별나라 구경 ㉥삼월의 무도회 ㉦복사꽃 피는 저녁, 이렇게 일곱 편의 이야기로 엮여있는 중편 동화이지만 그들을 각각 독립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작품 속의 중심인물은 동화작가인 ‘나’와 이미 죽은 소녀 ‘옥이’이며, 죽은 ‘옥이’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또는 ‘나’가 옥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주된 내용이다.

『꼬마 옥이』는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의 삶의 파괴, 고난과 죽음, 가족 해체 등을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 후의 황폐한 현실과 아동 개인이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을 환상적인 장치로 풀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³²⁾ 또한 1950년대 작가의 기억과 체험을 동화라는 장르로 집결해 놓은 작품이며,³³⁾ 한국아동문학에서 오랜 시간 판타지 동화의 정전 노릇을

적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쓴 동화가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했거나 그 내용이 어른들이 보기에 유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활발한 동화 창작 활동을 하던 1950~70년대 당시에는 아직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같은 종류의 용어가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거나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31)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이원수, 『꼬마 옥이』, 창비, 2013년(개정3판)”이다.

32) 박종순, 『이원수 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71.

해 온 작품³⁴⁾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채찬석은, “이원수는 동화의 소재를 생활주변이나 사회현실, 정치문제 등과 같은 성인 사회에서 선정하여 동화에 적용시킴으로써 동화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의 위대성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극복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현실참여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³⁵⁾고 하였는데, 『꼬마 옥이』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꼬마 옥이』에서 작품 전체를 일관되게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랑이다. ‘옥이’가 죽고 난 후에도 ‘나’의 앞에 나타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나’와 ‘옥이’의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특히 ㉠옥이의 천국 ㉡별나라 구경 ㉢복사꽃 피는 저녁에서 크게 부각된다.³⁶⁾ ㉠옥이의 천국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든 옥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아무데서나 사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니라.” (p.186)고 말씀하신다. ㉡별나라 구경에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나, 언니가 동생을, 동무가 동무를, 남편이 아내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일일까요.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세상에 서나 하늘에서나 눈물과 괴로움의 날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p.197)라며 별들이 사랑을 먹고서만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들도 사랑이 있어야지

33) 오세란, 『이원수의 <꼬마 옥이>에 나타난 자기 반영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p.317.

34) 박영지, 『1950년대 판타지 동화 연구 -이원수의 <꼬마 옥이>와 강소천의 <꿈을 짚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2

35) 채찬석, 『이원수 동화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51-63.

36) 이들 이야기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림자들의 이야기 역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배덕임(『<꼬마 옥이> 내의 그림자모티프 연구』, 『동화와변역』 16, 2008, pp.217-242.)은 『꼬마 옥이』에서 영혼, 환영, 무의식의 이미지로 표출되는 그림자 모티프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만 삶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라 일깨워준다. ㉠복사꽃 피는 저녁에서는 사랑을 주기 보다는 받는 것만을 좋아하며, 소유하기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이미 죽은 ‘옥이’가 살아있는 어른인 ‘나’에게 삶의 위안과 희망을 주고, ㉡옥이의 천국에서는 ‘옥이’의 사랑의 눈물로 지옥에 있는 어머니와 뱀에게 몸을 감긴 동무를 구원해 주고, ㉢별나라 구경에서는 사랑을 먹고 사는 별들이 사라지지 않게 변함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라고 일깨워준다. 이러한 ‘옥이’의 모습에서 “고통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아동이 남을 위해 마음을 써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세계관”³⁷⁾을 엿볼 수 있다.

『꼬마 옥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요소는 ‘죽음’이다. 『꼬마 옥이』 자체가 옥이가 죽고 난 이후 ‘옥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에서도 ‘죽음’은 이 동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옥이와 자장가는 전쟁 속에서 잃은 딸 ‘상희’에 대한 ‘나’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이며, ㉢별나라 구경은 그리워해 주는 이가 없으면 이내 빛을 잃고 사라질(죽을) 수밖에 없는 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삼월의 무도회는 ‘3·1 독립운동’으로 희생된 영혼들에 대해 꽃들이 들려주는 당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듯 ‘죽음’이란 요소가 『꼬마 옥이』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아무런 거부감도 주지 않는다. 이오덕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과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동문학에서도 할 수 있음을 선생의 동화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 이 동화집은 거의 모든 작품이 죽음에 관계되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죽음이란 것이 조금도 두렵거나 꺼림칙한 것으로 그쳐있지 않고 읽는 이들에게

37) 박종순, 앞의 논문, p.163.

깊은 생각을 주고, 혹은 위대한 행위로 나타나고, 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고 아니면 영원한 삶의 즐거움이나 평화스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³⁸⁾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는 『꼬마 옥이』가 그만큼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잘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 장에서 필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꼬마 옥이』는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꼬마옥이』는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은 동화이다.

『꼬마 옥이』의 작가가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동심 회복을 위해 일생을 살다간 위대한 어린이’³⁹⁾ 이원수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부분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다만, 이원수의 동심은, 아이들에게 나쁜 것이나 추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동심천사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성에 주목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서민 어린이들의 현실의 삶을 주목하고 작품에 담았다”⁴⁰⁾는 특징을 지닌다.

② 『꼬마 옥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동화이며, ③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어른에게는 어른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동화이며, ④ 어른들이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이다.

『꼬마 옥이』는 1950년대에 창작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어린이들에게 사

38) 이오덕, 『겨레의 삶과 희망을 담은 동화』, 『꼬마 옥이』, 창비, 2013, pp.218-219.

39) 이원섭, 『(추도문) 티없이 영원한 동심』, 『아동문학평론』 6-1, 아동문학연구원, 1981, p.12.

40) 우미옥, 『한국 아동문학의 알레고리 연구 -이원수와 마해송 동화의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3.

랑받는 동화라는 사실에서 어린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⁴¹⁾ 그렇다면, 『꼬마 옥이』가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였는가가 문제이다. 김지영은 “이원수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삶이나 현실과 중첩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아동문학이라고 해서 언제나 천국 같은 세상을 그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원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⁴²⁾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에서도 이원수가 동화를 쓸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꼬마 옥이』에 등장하는 작가는 어른이므로 동심을 망각했지만 옥이를 만나는 순간 동심을 회복하여 환상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대언할 수 있게 된다.”⁴³⁾는 사실에서도 이 작품이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른들이 읽으며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옥이와 자장가나 ㉡복사꽃 피는 저녁의 경우엔 동화작가인 ‘나’의 이야기이며, 어른인 ‘나’의 아픔과 고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 더 쉽게 어른들의 공감을 살 수 있다. 특히, ㉢그림자들의 이야기에서 ‘나’가 옥이가 경험한 그림자 세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상에 남을 속이기 잘하는 사람도 제 그림자만은 속이지 못하리라. 내 그림자가 나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날에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아무 가치도 보람도

41)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꼬마 옥이』는 동화집 『꼬마 옥이』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일 것이다. 창비(창작과 비평사)에서 1977년 2월 초판 발행된 이래 2013년 4월에는 개정3판 5쇄가 발행되었다. 이렇듯 3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꾸준히 발행된다는 것만으로도 『꼬마 옥이』는 동화계의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다.

42) 김지영, 『이원수 동화의 현실주의적 성격』,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47.

43) 오세란, 앞의 논문, p.311.

없지 않겠니?”(p.172)라며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이 작품이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어른들이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⑤ 「꼬마 옥이」는 작가의 동심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의식이 표출이 된 뛰어난 동화이며, ⑥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한 동화이다.

「꼬마 옥이」는 7개의 이야기가 사랑을 그 주제로 하고 있으며, 죽음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는 작품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림자들의 이야기는 ‘선행’과 ‘정직’을, ㉡옥이와 자장가는 ‘전쟁의 참혹함’과 ‘부성애’를, ㉢삼월의 무도회에서는 ‘조국과 겨레의 소중함’ 등을 주된 주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꼬마 옥이」는 작가 이원수가 동심에 기초하여 다양한 주제 의식을 표출해 내며,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해 낸 동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꼬마 옥이」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인정되고 감상될 수 있는 것이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성인동화’라 일컬어지는 것들 중에서,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읽을 수 있어 아동문학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인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지칭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인정되고 감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인동화’의 붐이 인 이후,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른이 읽는 동화’, ‘생각하는 동화’, ‘성인(용)동화’ 등의 부제를 단 서적들이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다. 그런데 출판업계나 연구자들 대부분이 이들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인동화’ 중에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읽을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어린이는 읽어서는 안 되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적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고를 준비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그러한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거나 연구한 글도 거의 없어, 본고의 시도는 여러 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원수, 『꼬마 옥이』, 창비, 2013.
 생텍쥐페리 지음, 이정림 옮김, 『어린왕자』, 범우사, 1991.
 후안 라몬 히메네스 지음, 김은정 옮김, 『모르게 마을의 시요일』(원제:Platero and I), 국일문화사, 1991.

2. 논문 및 단행본

- 권순연, 「정채봉 동화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1-68.
 김지영, 「이원수 동화의 현실주의적 성격」,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1-56.
 박영지, 「1950년대 판타지 동화 연구 -이원수의 <꼬마 옥이>와 강소천의 <꿈을 적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1-80
 박재형, 「(서평) 소위 성인을 위한 동화라는 것, 이상배의 <눈물꽃>, 송재찬의 <찬란한 믿음>, 김상삼의 <가슴앓이 새>」, 『아동문학평론』 18-4,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93, pp.130-136.
 박종순, 「이원수 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1-173.
 박천홍,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 『출판저널』 280, 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pp.38-39.
 배덕임, 「<꼬마 옥이> 내의 그림자모티프 연구」, 『동화와번역』 16,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8, p.217-242.
 석용원, 『아동문학 원론』, 동아학연사, 1982, pp.1-296.
 손종일, 「성인용 동화의 영역탐구 - “어린왕자를 찾아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1-91.
 오세란, 「이원수의 <꼬마 옥이>에 나타난 자기반영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pp.295-320.
 우미옥, 「한국 아동문학의 알레고리 연구 -이원수와 마해송 동화의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p.1-174.
 이오덕, 「겨레의 삶과 희망을 담은 동화」, 『꼬마 옥이』, 창비, 2013, pp.216-231.
 이재철, 「남겨야 될 글과 버려야 될 글」, 『아동문학 평론』 12-4,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87, pp.12-13.

정채봉, 『생텍쥐페리가 한국아동문학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 20,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95-103.

_____, 『왜 동화를 쓰느냐고 물으신다면』, 『물에서 나온 새』, 샘터, 1993, p.5.

조일영, 『정채봉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1-80.

채찬석, 『이원수 동화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p.1-74.

최지훈, 『동화 문학의 하위 갈래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창비어린이』 8-3, 창작과비평사, 2010, pp.75-79.

_____, 『아동문학 장르, 다시 생각한다』, 『아동문학평론』 34-3, 한국아동문학연구원, 2009, pp.123-151.

_____, 『동화작가 정채봉론 - 동심과 신앙적 가치관이 엮는 성인동화의 가능성』, 『아동문학평론』 14-2,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89, pp.33-42.

허 연, 『(인터뷰)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작가 정채봉씨 “어른과 아이가 공감하는 세계를”』, 매일경제 1997.04.28. 31면 기사.

Abstract

Lee Won-Su's Fairy Tales, 'Kid, Wogi'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Fairy Tale for Grown-Ups'

Lee, Hwang-Jin

This paper analyzed the reason why Lee Won-su's collection of fairy tales "Kid, Wogi" can be apprecia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fairy tale for grown-ups". Ahead of appreciating and analyzing the work,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fairy tale for grown-ups" was attempted. In general, "fairy tale for grown-ups" and "adult fairy tale" are perceived to be different expressions with the same meaning, and they have been used without clear distinction; however, because there are fairy tales that are aimed only at adults and cannot be read by children these two should be strictly distinguished in use. Accordingly, the writer proposes to indicate adult fairy tales as "stories aimed only at adults created by borrowing the form of a fairy tale or the name of a fairy tale", while indicating fairy tales for grown-ups as "fairy tales created while keep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 fairy tale aimed both at children and grown-ups". In this way, "adult fairy tale" will be naturally literature that cannot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hildren's literature, while "fairy tale for grown-ups" will be literature that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hildren's literature. Also, "fairy tale for grown-ups" is created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adults; thus, it is defined as being a "fairy tale which both children and adult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at their own level". Focusing on these facts, as a result of considering "Kid, Wogi", "Kid, Wogi" was confirmed to conform sufficiently to be a "fairy tale for grown-ups".

Key Word : fairy tale for grown-ups, adult fairy tale, children's literature, Lee Won-su, "Kid, Wogi"

이황진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주소 :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31-8005-3463 / 010-8826-1255

전자우편 : ongogsin@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